

아카의 특공정 비밀 참호

이는 아카지마 섬에서 특공정이 숨어 있었던 두 곳의 참호 가운데 하나입니다. 게루마지마 섬에 두 곳이 더 있었습니다. 이 특수한 참호에 있었던 배는 제 2 해상 급습 함대의 것이었습니다. 레일을 갖추고 배 5 척을 수용할 수 있었던 참호는 섬 주민과 조선인 노동자 건설대에 의해 구축되었습니다.

특공정은 베니어판으로 만들고 자동차용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. 중량은 1,200kg, 길이 5.6m, 폭 1.8m 로서 조종사가 단신으로 배를 조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. 조종사의 임무는 120kg 의 수중 폭탄 두 발을 가능한 한 미국 해군 함정 가까이에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. 특공정은 연락선의 머리글자인 ‘레’를 쓰고 이를 원(마루)(○)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‘마루레’라고 불렸습니다.

일본군은 필리핀 전쟁에서 효과를 발휘한 이 ‘비밀병기’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. 때문에 아카지마 섬과 게루마의 참호에 100 척, 나아가 자마미지마 참호에 100 척의 특공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‘한 척도 출격하지 않는 사이에 공습 또는 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’라고 현대 일본의 기록에 적혀 있습니다. 특공정 위에 참호가 무너져 떨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직접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다른 경우로는 배의 출격기지가 파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.